



해외사료곡물 개발수입을 위한 현지조사단 파견

— 한국사료협회, 미국 토바코회사와 합자투자 계획 —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는 해외 사료 자원 개발수입을 위해 미국현지의 옥수수농장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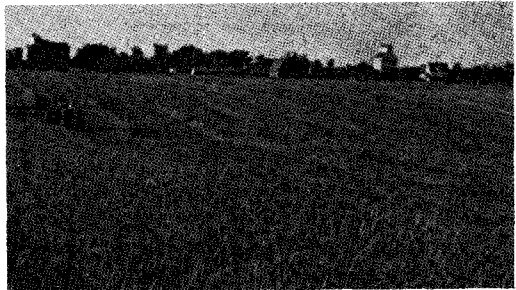
미국 US TOBACCO회사와의 합자투자를 추진키위해 워싱턴주 옥수수농장 건설의 현지타당성을 조사하게 되는 이번 관민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12일 출국하여 17일간 임무를 마치고 3월 28일 귀국하였다.

한국사료협회 권 배상무와 대우실업 이창우이사, 삼성물산 윤의선부장, 농수산부 김정용사료과장, 농진청 맥류연구소 홍병희연구관, 농업진흥공사 김동만부장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단은 실험재배를 위한 합작투자의 타당성과 본사업을 위한 타당성의 조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시험재배를 위한 합작투자 타당성

- (1) 시험재배지역의 옥수수 재배적지여부
 - 기술적 타당성: 토질, 기후, 강우량
 - 경제적 타당성
 - 생산단위수확량(에이커 당 4M/T생산 가능여부)
 - 생산비(토지 및 농기구 임차비용 경영비)



△사료협회는 앞으로 미국 현지에 옥수수 농장 건설을 할 예정이다.

- (2) 생산적 처리방법 검토
 - 저장시설 ○운송시설
- (3) 합작투자 조건
 - 투자규모(재원조달방법) ○운용조건
- (4) 기존곡물Major 및 유통업체와의 마찰
 - 나. 본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 (1) Pasco 지역 일대의 옥수수 재배 가능성
 - 시험재배지역과의 비교
 - 재배적지의 확보 가능성
 - (2) 저장 시설 설치
 - 싸이로 시설 규모
 - 설치지역 탐색
 - (3) 운송방법
 - 도로 여건 조사
 - Barge 운송

30만평 규모 식품가공단지 건설

— 농수산부, 정부·민간투자로 —

농수산부는 82년부터 시작되는 경제개발 5차 5개년 계획기간중 30만평 규모의 식품 콤비나트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 콤비나트는 사료공장, 제분, 제유, 제당, 제면, 제과, 청량음료등 식품가공기업을 단지화하고 기업간 생산공정을 계열화시켜 원료 이용면에서 제품생산에 이르기 까지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계획을 정부와 민간투자로 부지는 원로및 제품수송의 편리를 위해 임해지로서 아산만공단을 고려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창원, 여천, 반월등 기존단지도 고려하고 있다.

식품 콤비나트에는 우선 1차 가공처리공장으로 제분·제당·제유·도정·전분, 냉동수산물산물처리공장이 들어서고 2차 가공과정으로 제과·제면·제빵·각종「인스턴트」식품·청량음료·乳肉·청과물 가공공장이 들어가고 이와함께 식품공장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사료공장과 유통「센터」가 들어간다.

또 창고·공해처리시설·시험연구소·정보처리「센터」·포장재공장등이 들어서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며 밀·콩·원당·쌀·옥수수등이 「사일로」에서 「파이프」로 가공공장까지 수송된다.

식품「콤비나트」가 건설되면 원로및 제품의 운반비·하역비·창고보관비등이 절약되고 부패및 자연손실을 막을수 있어 생산비의 25%를 아낄수 있다고 한다. 또 현대적인 생산체제로 본격적으로 식품공업을 육성할 수 있다.

● 수산. 축산업 종사자도

이재민 구호대상에 추가

정부는 이제까지 주택과 농작물 피해자 예계만 구호하던 것을 수산업과 축산업 종사자를 이재민 구호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사망자에 대한 유족위로금을 현행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장의금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르면 국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서울의 경우 중전 구단위 피해액 5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부산은 구단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기타 시군은 2억원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재민 부식비는 하루 2백 20원에서 2백 65원으로, 유족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1급 2백 만원에서, 2백 20만원으로, 2급은 1백 60만원에서 1백 80만원으로, 3급은 1백 20만원에서 1백 3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주택복구비는 전파가 5백만원에서 5백 40만원으로, 반파가 1백 80만원, 월세 및 전세자는 75만원에서 80만원, 독신자는 18만원에서 1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와 함께 복구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나 하천 및 해안의 파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높이 1m 미만의 작은 제방과 폭 2m 미만의 작은 도로 등은 중앙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같은 조정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 반영된 것이다.

영농협의회 제도 활용 — 고농수산,

정부 농민과 폭넓은 대화—

高建 신임농수산부장관은 『앞으로의 농정은 오직 합리 농정의 기초위에서 현실적이고 탄력성 있는 계획, 일괄되고 책임있는 시책을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성의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高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합리농정의 자세는「봉사와 신뢰」 그리고「지도와 선택」의 궤도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어민 사이에 폭넓은 대화의 광장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제, 농어민 대표로서 구성되는 지역별 또는 분야별「영농 협의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高장관은 농정의 기본목표를 식량자급 달성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 그리고 농수산업의 불리성을 타개하고 농어촌 경제사회로 발전시키는데 두겠다고 밝히고 식량의 자급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인 품

종개량과 기술혁신, 지력증진시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리나 감자의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국적인 국민식품의 개발에 주력하여 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산과 수산 진흥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高장관은 유통구조를 개선 위해 집하수송·저·가공시설들을 정비 확충하는 한편 농업통계와 관측업무를 강화하기 위해「농수산물 가격정보센터」의 설치 영용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高장관은 이어 농어촌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획일적인 영농지도를 지양하고 농가별 경영규모별로 유형화하여 협업이나 전업농에 대한 경영지도를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高장관은 농업기계화에도 언급, 우리실정에 알맞는 소형농기계를 개발 보급하겠다고 말하고 농어민 후계자는 80년대에 새로운 농어업을 이끌어 나갈 주체가 되도록 육성시키겠다고 밝혔다.

가축개량증식사업 1억90억원 지원

— 축협, 축산진흥기금 용자—

축협중앙회(회장: 김일로)는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90억 1천 6백만원의 축산진흥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용자되는 축산진흥기금 금리는 연16.5%로 한우계통번식사업, 암송아지 입식사업, 강화지구 한우·샤로레교잡우 생산사업,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대관령 육우시범종자 조성사업 태백산지구 축산단지 조성사업, 새마을 소득증

대 젓소입식사업 저능력우 비육전환사업등에 지원된다.



△ 축협은 가축개량 사업을 위해 축산진흥기금 19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곡저장·분뇨이용등 농촌개발 성과 거둬

— 과학기술원, 외국전문가 초청 발표예정 —

불결한변소 원시적인 양곡·야채저장방법 등 낙후적인 농촌생활을 다각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과학기술연구결과 발표회가 오는 5월 25일 부터 과학기술원(KAIST)주관으로 열린다.

KAIST 농촌개발사업 연구팀(대표 권태완 박사)은 지난 79년 6월부터 한·독 연구사업으로 한국 농촌 종합개발연구사업에 대한 결과를 태국·「말레이시아」등 동남아각국의 농촌관계전문가 30여명을 초청, 국제워크샵을 오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갖기로 했다.

KAIST는 그동안 양곡저장과 건조방법개선, 농어촌폐수관리와 변소개량, 분뇨의이용 및 미생물에 의한 환경정화등 10개분야에 걸쳐 우리실정에 맞는 농촌기술의 혁신을 추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연구결과가 나온것은 그 모델을 「아시

아」 「아프리카」등 후진국 농촌에도 파급시킬 예정이다.

KAIST는 그동안 연구를 통해 분뇨를 이용한 사료의개발, 낙도의 급수난 해결을위한 태양열증발기의 개발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연구의 특징은 그동안 새마을사업에서 농촌의 지방개량·도로확장등 주로 외형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농촌환경개선을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접근, 실질적인 소득을 대폭 올린다는 것이다.

독일 기술협력청(GTZ)은 연구결과를 관심있는 제 3국에 보여주고 한국을 농촌개발국의 시범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최종결과를 얻어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전수시킬 계획이다.

KAIST가 연구중인 과제는 발표와 같다.

한국농촌 종합기술개발 연구과제

연구 분야	연구 제목	책임자
농산물의 수확후 관리 개선분야	농가규모에서의 양곡저장과 건조방법개선에 관한 연구 농가수준의 과실 야채저장시설에 관한 연구	최 홍 식
위생및 분뇨의 이용분야	농어촌 폐수관리와 변소개량에 관한 연구 분뇨의 이용및 미생물에 의한 환경정화에 관한 연구	이 은 호 배 무
농산부산물및 가축분 이용분야	농산부산물및 가축분의 사료화 방안에 관한 연구 셀룰로스성 농산폐기물을 이용한 생화학물질 생산에 관한 연구	김 춘 수 한 문 희
태양열에너지 이용분야	농촌주택 난방및 용수가열을 위한 저렴한 태양열 집열장치분야 낙도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태양열증발기의 개발 태양열 곡물 건조기의 개발에 관한 연구	오 세 중 박 원 훈 이 호 식
특수분야	솔잎혹파리의 방제에 관한 연구	채 영 복

퓨리나 서울농대에 장학금지급

—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 —

지난 3월13일 수원에 있는 서울대 농대학 장실에서 이 은용 학장과 송 계원 축산학 과장을 비롯한 축산과 교수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한 장학금 전달식이 베풀어 졌다.

최근 양계업계의 불황으로 업계의 분위기가 우울한 이때 청량제가 아닐수 없다.

더욱이 채란 양계업계의 불황은 사로업계에 까지 영향을 미쳐 사로업계도 자금난으로 어려운 때 이기에 더욱 돋보이는것 같다.

이번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퓨리나 코리아의 이 영석 부장은, 퓨리나는 그간도 개별적으로 축산과 대학생에 장학금을 매년지급하여 왔고, 우리나라 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청 소년들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하여 왔는데, 금년 부터는 더욱 효율적으로 장학금이 사용되기 위하여 매년 지급하는 방법을 바꾸기로 하였다고한다.

다음의 기증서가 더 잘 설명하고 있다.

「폐사가 귀대학 장학금으로 일금 오백만원을 기증하게 된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축산업과 사로공업은 하나의 응용과학으로써 동업계의 건전하고 경쟁력을 지니는 발전은 날로 달라지는 최신 지식과 기술을 자유롭고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며, 농과대학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의 원천일 뿐 아니라 육성장이며 훈련 도장으로써 현재는 물론이요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그가 가지는 중요성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하겠읍니다.

이런 뜻에서 폐사가 드리는 이 장학금이 가축가금 영양학과 축산 경영학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에게 학비조달에 보탬이 되는 기금이 되었으면 고맙겠읍니다.」

장학금을 전달받고 이 은용 학장은 서울대의 어느 다른 대학보다 농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아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며 이 장학금은 기금으로 사용되어 질 것이며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사용될것 이라고 인사말을 하고 감사패를 수여 하였다.

퓨리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윤의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퓨리나 코리아의 서울농대 장학금 전달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건전한 기업정신의 귀감일 것이다. (사진은 장학금전달과 기념패전달)

제1회 양돈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 한국축산과학연구소 주관 4월27일 부터—

한국축산과학연구소(소장:한인규)는 농수산부의 후원으로 제 1회 양돈산업진흥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오는 4월27일부터 2일간 서울시 회현동소재 무역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동 연구소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국제교류로 격년마다 실시하게 되는 이번 심포지움은 한국 사료협회, 미국대두협회, 로디아 코리아, 아이오아 돼지 수출상사 한국양돈연구회가 협찬한다.

동 심포지움은 1) 정책 및 육종분야 2) 영양사료 분야, 3) 유통 및 경영시설 분야, 4) 질병및 번식생리 분야로 나누어서 발표된다.

발표내용과 연사는 다음과 같다.

- 자유중국 양돈산업과학화를 위한 최근 연구동향...F. K. Koh박사(자유중국 양돈과학연구소장)
- 돼지육종분야의 최근 연구동향...박영일 박사(서울농대)
- 우량종돈 생산을 위한 육종계획...L. Christian박사(아이오아 주립대)
- 돼지의 단백질과 아미노산 요구량...W. G. Pond 박사(미국 축산학회장)
- 돼지의 비타민, 미네랄 요구량과 첨가제의 효능...한인규박사(서울농대)
- 돼지와 단위동물에 대한 아미노산 첨가에 의한 단백질 절약효과...J. Loughnon박사(AEC연구관)
- 돼지 영양학의 최근 연구동향...W. G. Pond 박사.
- 영양수준이 비육돈생산 및 육질에 미치는 영향...정천용박사(축산시험장)
-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의 문제점...윤효직박사(전대축산대)
- 축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정책...허신행 박사(농촌경제연구원)
- 출하 체중조절이 비육돈 생산비 및 육질에 미치는

- 영향...정숙근박사(축산시험장)
- 대두의 국제적 수급전망...이경원박사(미국 대두협회)
- 미국의 종돈 수출절차...Mr. Wesley Randell (아이오아 돼지 수출상사)
- 돈 콜레라의 변역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T. Kumagai박사(도쿄 농공대학)
- 기업양돈장의 질병현황과 대책...박응복박사(서울농대)
- 돼지의 병원성 대장균 실사병...김봉환박사(경상대학)
- 가축인공수정 및 번식생리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박충생박사(경상대학)
- 돼지 번식장애의 발생실태와 대책...정운익박사(가축위생연구소)

종모우(種牡牛) 15두 도입

— 축협, 가축개량위해 —

축협중앙회는 가축개량 사업을 확대키 위해 금년에 유우 8마리, 肉牛 7마리 등 15마리의 종모우를 도입키로 했다.

축협은 최근 단위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품종개량을 위한 가축개량 사업이 활발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우수한 종모우가 부족함에 따라 금년에 2억 3천 6백만원을 들여 「美国」「캐나다」등으로부터 15마리의 우수한 종모우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축협은 오는 5월까지 종모우 도입을 완료하고 기존 1백10여마리의 종모우를 포함, 총 39만cc의 정액을 생산 젖소13만마리, 한우24만마리, 사료레교잡종 5만마리에 인공수정을 시킬 계획이다.

농산물 저장시설 건설

—세계은행 발표—

연간 2백60만톤 규모의 농수산물 저장시설(건설비 2천7백만달러)이 국내 자본과 차관으로 한국에 건설 중이라고 세계은행(IBRD)산하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했다.

IFC는 이날 이 농산물 저장시설이 건설되면 한국이 소매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저렴한

한 선임에 의한 가축및 낙농제품의 보급, 농산물 손실의 감소,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등여러가지 면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벌크 터미널 회사가 건설중인 이 농산물 저장 시설을 위해 미국의 퍼시픽 인터내셔널 곡물회사와 대한 제당회사가 각각 4백20만 달러와 2백50만 달러와자본을 투입 하고 IFC가 2백50만 달러의 자본참여를하고 있으며 IFC는 이 계획을 위해 7백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방화학 양계·양돈세미나 성료

—린코마이신, 린스마이신 신제품 소개도—

동방화학(대표: 이각모)은 미국 업존회사의 렛싱거박사(업존기술부장)와 랭그워드박사(태양평 지역담당관)를 초빙 양계및 양돈세미나를 개최하였다.

4월3일부터 2일간 서울 청량리 신라예식장과 맘모스 호텔에서 각각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동사의 신제품 린코마이신첨가제와 린스마이신 첨가제의 경제성과 효능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과 최근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닭질병과 돼지질병에 관해 그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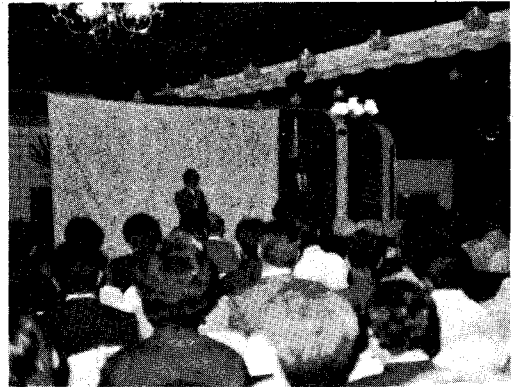
세미나에서는 린코마이신의 안정성, 안전성, 주효과에 대한 중점연구와 미국에서의 비교 실험성적등이 발표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의 많은 관심으로 연인원 5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발표 제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금년도 양계업의 전망……렛싱거박사(미국 업존)

○린코마이신 첨가제와 린스마이신 첨가제의



△동방화학이 주관한 양계·양돈세미나는 업계의 많은 관심으로 5백명이나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경제성과 효능……랭그워드박사(미국 업존)

○최근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감보로와 뉴캐슬병의 문제점과 대책……오경록실장(천호부화장)

○최근 국내에서 문제 되고 있는 양돈질병 퇴치와 그 대책……권영방연구관(가축위생 연구소)

가축보험 중 · 소가축에도 취급

—고려화재, 병아리 수입시에도 가능—

고려화재해상보험은 가축보험업무를 대가축외에 중·소가축에도 실시 양계농가의 수입시에도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가축보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문의는, 고려화재해상보험(주) (☎ 72-4254~9)로 문의하면 된다.

◎ 특 약

[適用特則]

1. Mortality (사망위험) 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Livestock clause (가축보험약관) 을 첨부하고, Quarantine Certificate (검역증명서) 를 제시하여야 한다.

2. Mortality (사망위험) 담보에 대한 A. P (추가요율)

일 본 : 선박 : 4 %
항공 : 2.5 %

기타지역 : 선박 : 5 %
항공 : 3 %

3. I. T. E. (내륙운송연장담보) : 0.16 %

家畜約款 (Livestock clause)

이 보험 약관은 사지골절 (四肢骨折) 로 고통하는 경우의 안락사, 투하, 유실, 도난, 공동해손 및 특별비용 (피난항에서의 선박수선비를 포함한다) 을 포함하여 사망위험 (출산시의 사망을 제외한다) 을 담보한다. 가축은 보험증권의 기재된 최종목적지 도착후 24시간까지 또는 격리수용직전의 도착시 까지 담보된다. 가축은 위험 개시시에 건강상태가 좋아야 한다. 갑판상의 적재는 자유이나 이 경우에는 통제관리하여야 한다.

傷害, 接種과 그 후유증, 수입금지, 검사 불합격 또는 전염병으로 인한 관계당국의 屠殺에 기인한 위험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보상금의 지급은 사망의 경위와 분명한 원인을 기재한 관계당국의 확인 (검역증명) 있는것을 조건으로 한다.

[保險料率]

◎ 기 본

지역	보세외항	국내연안	일본	대만홍콩	동남아	중동아	호주지역	구라파	북미(동)	북미(서)	남미(동)	남미(서)	
F P A	%	%	%	%	%	%	%	%	%	%	%	%	선박
A/R (Air)	0.03	0.13	0.16	0.17	0.19	0.19	0.20	0.20	0.18	0.21	0.19	0.19	항공
		0.34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3	0.45	0.45	

양계인은 단합된 힘으로 굳게 뭉쳐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을 지혜롭게 타개하자

육류수급안정위해 가축시장 재정비되어야 —농협, 쇠고기·돼지고기 시장 구분도 필요—



△육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축시장은 속히 재정비되어야 한다.

쇠고기 돼지고기등 육류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가축시장 재정비로 산지가축시장 기능을 강화해야하며 지육유통체제를 확립할수있도록 지육수송체제와 산지지육판매제의 선행이 이뤄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이조사보고서에서 가축시장을 기능별로 구분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하고 도살용 우시장은 경매시장화되 가능하면 육우 시장과 돈육시장으로 구분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육유통체계확립을 위해서는 지육수송체제와 산지지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산지시장에서는 생산거래와 도축및 지육반출을 담당하고 소비지시장에서는 지육경매와 정육소매로 구분하여 소비지까지의 생체유통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경매시 등급및 규격화를 실시해야 할것으로 지적했는데 현재 소의 경우는 형체·뿔·색깔·비육도·건강상태등에 따라 경매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론 확실한 등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미국의 경우는 중량과 질을 감안하여 8등급과 일본은 5등급 24개부위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은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정보를 농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지시장 근대화및 수송체계확립을 위해 각종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산지 축산물의 유통구조분석」 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가축시장 기능이 미흡하여 하루평균 50마리도 경매하지 못하고 있는 가축시장이 80년 말현재 4백63개 시장 가운데 무려48.6%인 2백25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50~1백마리 규모가24.6%인 1백14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km이내의 겹쳐진 시장이 70여개 시장에 달해 경영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들 영세가축시장에 대한 과감한 재정비로 산지 가축시장의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79년 세계 농산물 교역량 13% 증가

지난79년 세계의 농산물 교역량은 전년 대비 13%증가한 사상최고인 약 2천 6백2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세계식량 농업기구(FAO)가 발표했다.

FAO는매년 발행하는 80~81년도 세계 농산물(어업및 임산물 포함)교역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간은 농산물 특히 원자재의 수요 둔화속에서도 많은 1차 산품의 가격이 급등한 해였다고 지적했다.

세계 식량부족 심화예상

— 일본誌, FAO 발표 인용 보도 —

세계의 곡물재고량이 크게 떨어져 심각한 식량부족 상태가 예상 된다고 일본의 주간다이어먼드지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FAO (UN식량농업기구)는 세계 곡물재고가 세계 소비에 대해 13% 이하로 떨어지면 식량위기가 발생할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 6월말 재고가 1억 3천만톤에 이르러 소비에 대한 비율이 13%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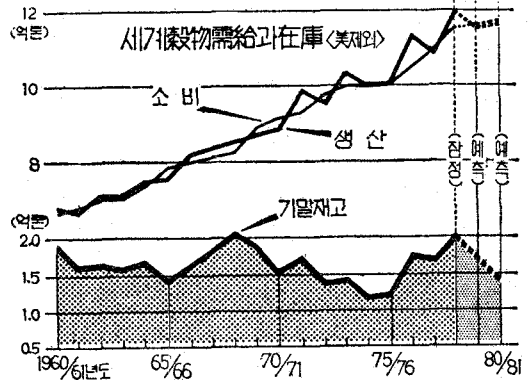
이는 73·74·75년 수준인 12%대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73년에 맞이했던 식량위기가 재연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경향은 세계곡물 생산국들의 작황부진 때문인데 소련은 79년에 1억 7천 9백 만톤이 감소된데 이어 지난해도에 1억 8천 9백 20만톤을 생산 계획보다 20%가 떨어졌으며 곡물비축량도 바닥이나 외국시장에서 대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도(80년도 전년대비)에는 12.3%의 감수가 예상되고 이밖에도 호주·중공도 한발로 대량감산이 불가피해서 80년도의 세계곡물생산이 당초 예상했던 11억 5천 5백만톤을 밑돌것으로 보여 73년 식량위기이 이래 처음으로 2년연속 감산이 예상된다.

또 80년 6월말의 곡물이 월재고가 74년도의 1억 1천 9백 50만톤에 그쳐 세계 곡물수급이 악화될 것으로 소맥수출국회의가 내다봤으며 FAO도 세계식량사정이 생산전망으로 보아 경제경보의 단계까지 왔다고 경고 했다고 이보도는 밝혔다.

한편 세계 곡물거래는 카길·콘티넨탈·봉케드레페스·앙드레등 5개곡물메이저가 잡



고있으며 이들이 미국곡물의 85%를 취급하고 있다.

이들은 美연방 정부와 농무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석유 메이저와 같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시카고」 곡물시세는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급증추세는 보이지 않지만 미국이 대소곡물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곡물을 대량 매입하는 경우 곡물시세는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 잡지는 보도했다.

기사정정

본지 지난달 3월호 기사중 “양축가의 관심을 끄는 펠렛사료”의 기사중 다음사항이 잘못 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펠렛사료의 한국 첫 상륙은 70년 6월 제일사료(주)군산공장이며 제일사료는 지난 11년 동안의 펠렛사료 생산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도 계속 좋아지, 찧소, 양돈 브로일러 사료를 펠렛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계 단신

○ **축협중앙회(회장:김일로)**: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안양시 소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수의사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찬모(한국원종농장 상무)**: 서대문구 모래내지역의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브로스타 후라이드치킨 센타를 설치, 매월 26일을 "닭의 날"로 제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55-14
(브로스타 후라이드치킨)

☎ (373) 4026

○ **일본 하바드 협력회원 내한**: 오꾸무라(일본 하바드 농장축산부차장)씨가 인솔하는 일본 하바드협력회원 10명이 신기농장(대표: 이상윤)의 초청으로 지난 4월 7일 내한 신기농장 평택GP농장 및 하바드회원 농장을 방문 이번 내한한 협력회원은 하바드협력회의 친선도모와 신기농장의 하바드 종계수입 문제에 관한 중점적인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 **〈주〉롯데리아(대표:신준호)**: 전화번호 변경. ☎ (714) 7661~5

○ **제일사료(대표:오판영)**: 중부지역 양축가 서비스를 위해 천안직매소를 개설.

천안직매소: 천안시 원성동 600-19

☎ (2) 7827

소 장: 정 해 홍(전 우성사료)

○ **금강상사(대표:김영부)**: 업무확장을 위해 전화(대전) 73-4090을 증설.

주소: 대전시 동구 삼성 2동 307

☎ (72) 7296, (44) 2846, (73) 4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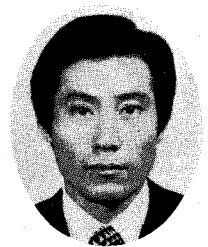
○ **〈주〉중앙케미칼(대표:김무진) 상호 변경**: 전 중앙약품공업사는 진실한 기업으로 육성 발전코저 4월 1일부로 법인을 설립하고, 〈주〉중앙케미칼로 상호를 변경 대표이사에 김무진씨가 취임.

주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81(대한 어머니 회관 201호)

☎ (676) 7621~3



(김 무 진)



(조 성 통)

○ **남성산업(대표:최인환)**: 주제품 석회석을 생산, 판매하는 동사는 사세확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사무소를 이전하고 영업부 활동강화를 위해 영업과장에 조성룡대리를 승진 발령.

서울사무소: 서울시 중구 북창동 17-8(지상빌딩 301호) ☎ (23) 5510

○ **신기농장(대표:이상윤)**: 일본 하바드 농장에 동사 전계식 방역부장과 관리기사 신상준, 최석태씨를 파견, 1년간 선진기술 연수를 위해 4월 16일 출국.

○ **축협중앙회(회장:김일로)**: 진흥부장에 이희영(전 사료검사소장), 구매부장에 이래혁(전 인천사료 공장장), 판매부장에 정충식, 사료검사소장에 오영균(전 홍보실장), 인천사료공장장에 한태식(전 인천사료공장 차장), 홍보실장에 김중무(전 홍보실 홍보역)씨를 각각 승진 발령.

○ **SF과학사료(대표: 신정재)**: 사세확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 사무실을 이전하고 영업부에 김명구(영남대졸), 박윤식(건대졸), 이승준(서울대수의대졸)씨들 특채
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37-12

☎ (714) 6331~3

○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 1981년도 사료산업연구개발(RZD)회의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

- 생산분야: 김 광 우(두산곡산)
김 정 인(신촌사료)
이 상 철(상진사료)
임 황 휘(무안서강)
유통분야: 김 금 수(홍성사료)
김 영 기(풍진화학)
한 성 순(진양사료)
최 동 희(원국산업)
경리분야: 도 인 석(영육농산)
윤 영 이(대호산업)
주 환 옥(남양산업)
윤 정 준(한성사료)

○ **한국식초건강회**: 식초에 생계란을 녹여 만든 영양음료 초란(醋卵)을 개발, 고혈압과 당뇨등 성인병 치료와 예방에 장복하면 효과가 있다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초건강회 ☎ (778) 2339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화이자(주)(대표: 김중배)**: 영업부에 이원철(서울대수의대졸)씨와 마케팅담당에 이수련(서울대수의대졸)씨를 특채.

○ **한일농원(대표: 차두홍)**: 업무활동강화를 위해 박기철(강원대축산과졸), 장용원(충남대축산과졸), 하태권(영남대축산과졸)박상대(연암축산전문대졸)씨를 각각 특채

○ **한풍산업(주)(대표: 최죽송)**: 영업부에 박순웅씨를 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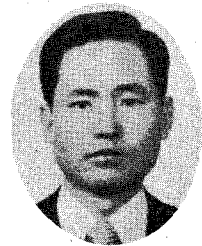
○ **동방무역(대표: 이각모)**: 일본 노자와 회사와 손을잡고 종돈수입및 수출, 축산기구수이용 의료기구, 농약및 화학제품, 단열보온덮개, 축산용 공해처리시설 기재등 수입업무를 개시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91

☎ (966) 1262



(이 각 모)



(최 재 준)

○ **최재준(엘라이 릴리 기술부장)**: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그린월드 연구소에 연수 및 조지아의 양계단지 시찰을 위해 4월25일 출국해 2주후에 귀국예정.

○ **서영채(전 한일농원 영업과장)**: 한일농원을 퇴직하고 육계생산업 자영.

연락처: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송내리 518 ☎ (동두천) 2704

○ **영육농산(대표: 김영희)**: 기획부장에 송재훈(전 생산부차장)씨를 승진발령.

○ **진흥사료(주)(대표: 배태현)**: 총무부장에 이석규차장을 영업부차장에 민충기과장 영업과장에 김희동대리, 업무과장에 김형개대리등을 승진발령.

○ **축협 부산사료공장**: 생산과장에 이병렬(전 농협조합)씨를 기용

○ **삼진사료**: 영업부차장에 이찬규(전 고려산업)씨를 기용하고 영업부에 배영상(동아대졸), 이희섭(경상대졸)씨를 특채